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탐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일본 내각부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work arrangements and new lifestyl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based on survey data from the Japanese Cabinet Office

일본 弘前大學 교육학부
준 교수 이수진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Lee, Suji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두 시기(코로나19 팬데믹 직후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일하는 방식,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생활만족도 등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일본 내각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직후(2020년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생활의식 및 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데이터이다. 제1회 조사 및 제4회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20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경권 거주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텔레워크 중심’ 일하는 방식을 경험한 비율은 36.1%로 전국의 응답과 비교해서 높다. 둘째, 이들은 텔레워크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한 사람과 유연근무를 경험한 사람이 지방 이주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출근 중심으로 일한 사람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텔레워크 경험자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감소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지방 이주를 촉진하면서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모색하는 돌파구로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일하는 방식,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생활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working arrangements, interest in rural migr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Japan in two periods: immediately after the COVID-19 (2019 coronavirus disease) pandemic and two years after the global outbreak. The comparison was based on data from the “Survey on Changes in Attitudes and Behaviors in Daily Life under the Influence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2020, 2021”, which was conducted four times by the Japanese Cabinet Office directly after the COVID crisis (May 2020 and September 2021). The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both the first and fourth surveys were employed individuals aged 20 years or old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Tokyo residents engaging in telework immediate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was 36.1%, which is higher than the levels observed nationwide. Second, individuals involved in telework

and those working under flexible arrangements were more highly interested in moving to rural areas than those who commute to work. Third, among people engaged in telework, life satisfaction diminished immediate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compared with the period before this crisis. After two years of the pandemic, however, life satisfaction among this group improved. Changes in working arrangements due to the pandemic can be expected to promote migration, as well as help revitalize regions and encourage the discovery of new lifestyles.

Key words: COVID-19 pandemic, working arrangements, interest in rural migration, life satisfaction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체계적 관리와 개입이 요구되는 위기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위기에 대한 대응은 한편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 생활, 사회적 관계망,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과 같은 일하는 장소 및 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의 가장 큰 예로 재택근무의 보편화가 있으며, 재택근무가 도입됨으로써 통근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통근시간의 절약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먼저, 개인의 생활시간 배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시간 배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개인 및 가족의 생활시간 배분의 변화로 인해 가족 내 역할 분담 및 소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 차이가 있을지 하는 점이다. 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패턴 및 확산 규모 등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소비 생활의 편리성(예를 들어 현금이 없이도 모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의 보편화 등), 혹은 텔레워크가 가능한 직무환경의 조성 등 각각의 지역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차이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본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지방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텔레워크 경험 등을 계기로 사람들의 지방 이주로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지방 이주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이 되었다.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지는 이점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도시 생활에 비해서 생활물가가 싸고, 생활비 중에서 비중이 큰 월세 등의 주거비의 절약을 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직주근접의 실현을 통해 통근시간의 절약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 생활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대도시에 비해서 쉽게 정비될 수 있다. 한편, 지방 이주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직업 선택의 제한 및 수입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

하는 장소의 자유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의 경험은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21)에 따르면, 19세 이상 취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재택근무를 한 사람은 16.6%였는데, 이들 중 85.9%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에 따른 재택근무 경험률도 약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재택근무 경험률이 높은 수준이었다(통계청, 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기존과는 다른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일과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가 2021년 3월, 전국 만 25-54세 직장인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장생활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평가가 42%를 차지하였고, 응답자의 52%가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32%는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하였다(한국 갤럽 조사연구소, 2021). 한편, 통계청의 사회조사(2021)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의 확산과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73%로 매우 높았고, 재택근무와 같은 지금의 변화가 지속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과 '변화가 가속화 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인터넷조사 전문회사 intage-quails와 intage가 2022년 1월,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69세 남녀 2,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변화했다」는 항목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커뮤니케이션」(40.7%)이었고, 코로나19 시기에 「변화했고」, 이후로도 변화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야(정착도 1위)로 가장 많은 응답은 「일하는 방식」(71.6%)을 꼽고 있었다. 또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중에서 1위는 「텔레워크」이며, 정착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クオリスwebマガジン, 2022a).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도입된 기존과는 다른 일하는 방식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면서 정착되게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통계청 사회조사(2021)에서는 ‘가족 간 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까워졌다’는 응답(12.9%)이 ‘가족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1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2021)의 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48%,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갤럽 조사연구소,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정생활의 변화는 전체적인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의 질 향상을 불러온 요인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운동, 야근, 회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유시간 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텔레워킹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인적인 시간 증가, 가족과 지내는 시간 증가 등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의 질의 향상을 실감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クオリスwebマガジン, 2022b).

이상에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과 가정생활에 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활 방식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바꾸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생활 방식의 하나의 예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시기에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 지방 도시에서 수도권 및 지역 광역 도시로의 인구 이동 및 인구 유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소멸의 우려와 함께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은 지역활성화의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지방 이주에 관한 대량 조사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두 시기(코로나19 팬데믹 직후와 코로나19 팬데믹 2년후)의 일하는 방식,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생활만족도 등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하는 위기적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양식을 새롭게 모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효과

1) 코로나19 팬데믹과 일본 사회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일본 사회의 변화 양상을 취업자수 및 혼인 건수의 동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경제신문 2022년 2월 1일자 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고용회복의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점을 총무성의 ‘노동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총무성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1년 평균 취업자수가 전년에 비해서 9만명 감소하였고,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日本經濟新聞, 2022).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 종사자가 많은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日本經濟新聞, 2020). 이는 여성, 비정규직,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 상황에서 월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결과(高見, 202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혼인 건수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에서 2022년은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감소 건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3년간 15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되었다(日刊スポーツ, 2022). 경제적인 불안이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日刊スポーツ, 2022),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신문 2022년 7월 3일자 기사는 50세까지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비율, 즉 생애미혼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애미혼율은 남성 28.3%, 여성 17.8%임을 보여주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22).

2)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텔레워킹의 보급과의 관계

텔레워킹란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일의 방식을 뜻한다. 텔레워킹은 일하는 장소에 따라서 자택이용형 텔레워킹(재택근무), 이동 중 혹은 이동과 이동의 사이 시간에 일하는 모바일워킹, 위성사무실에서 일하는 새틀라이트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등의 시설이용형, 리조트 등 휴가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workcation) 등을 포함하는 일하는 방식의 총칭이다(日本テレワーク協会, 2022).

텔레워킹이 가지는 효과를 텔레워킹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텔레워킹은 인재확보의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일본의 NTT는 지난 6월 국내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2022년 7월부터 도입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인정함으로써 인재육성 및 인재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22). 근로자의 입장

에서는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藪田(2020)는 텔레워크를 통한 재택근무를 통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장시간 노동이었던 일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되었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2대 거점 즉 직장 및 가정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기초 자원인 자유시간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보았다(藪田, 2020). 또한, 텔레워크를 시행하는 것은 통근할 때의 스트레스 및 감염의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심신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일에 대한 집중력과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고, 고령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가족원의 생활을 지원하는 개호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가족과 지내는 시간의 증가는 생활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後藤 et al., 2020). 2020년 3월부터 텔레워크를 도입한 후지쓰 그룹의 예에서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워크라이프 시프트라고 명명하고 텔레워크를 추진해 온 후지쓰 그룹에 따르면 텔레워크 도입 후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부임하는 단신부임을 해소한 사원이 약 800명, 한부모 가정이나 육아 및 개호 등의 이유, 배우자의 전근 등의 이유로 원격지 근무를 선택한 사원이 약 4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PRESIDENT WOMEN ONLINE, 2022).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재의 이탈을 막고, 인재의 유동성에 대응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정에 맞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지역활성화와 생활의 질

거주지 및 일하는 장소의 자유로움을 장점으로 들 수 있는 텔레워크 등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지역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생활에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일본의 전체 인구의 29%가 동경에 거주하고 있고, 동경권의 인구 집중도는 서구의 도시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5-29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동경권으로 인구의 대량유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総務省, 2021). 한편, 동경권으로의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2021년을 보면 전출인구와 전입인구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고, 더 나아가 동경23구 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전출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NHK政治マガジン, 2022).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권으로의 인구 이동의 변화 기초와 맞물려 내각부는 「지방창생 텔레워크」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방창생 텔레워크」란 예를 들면 지방으로 이주하고도 동경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하던 일을 리모트

로 실행하는 것과 같은 지방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텔레워크를 일컫는다(内閣府地方創生テレワーク, 2022). 지방창생 텔레워크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창생 텔레워크를 추진하는 장점의 하나는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지금의 일을 계속하면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고향으로 귀향하거나 혹은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는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게 된다(マイナビニュース, 2022).

동경 유락초에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NPO 고향으로의 회귀 지원 센터에 따르면 작년 2021년 상담 건수는 대략 5만건으로 과거 최대 건수를 갱신하였다(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 202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텔레워크 경험 등을 계기로 사람들의 지방 이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들의 이주 및 정주 정책에 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총무성은 2021년 3월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이주 및 정주 추진 시책 사례집을 발간하였고, 사례집에서는 24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 및 정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의 특징은 이주를 고민하면서 이주를 결단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눠 각각의 단계별로 유용한 시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도 담고 있다(総務省, 2021).

2. 지방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권에 위치하는 주요 도시의 전입초과율의 상승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전입초과율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즉,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경도에서 동경권내의 교외의 현과 지방권으로 인구분산이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石川, 2021). 지방 이주에 관해서는 U턴이라고 하는 지방 이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U턴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진학 및 취직을 계기로 도시로 이주한 후에, 다시 나고 자란 고향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J턴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진학 및 취직을 계기로 도시로 이주한 후에, 고향에 가까운 지방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I턴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진학 및 취직을 계기로 고향에는 없는 요소를 찾아서 고향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一般社団法人移住・交流推進機構, 2022).

지방으로 U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용기회 즉 취업 가능성이다. 새롭게 취업할 경우, 전직이나 전근을 할 경우, 또는 퇴직 후에 일할 곳이 있는 것이 지방 이주의 결정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이영준·이수진, 2016; 李·杉浦, 2017; 岡崎 et al., 2004; 金田 et al., 2009; 佐藤 et al., 2014; 鈴木 et al., 2011; 丸山, 2021).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일과 취미생활 등 자기 자신의 생활을 즐기기를 원하는데, 여가환경에 대해서는 만족도 수준

이 높은 반면, 일에 대해서는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沼野, 1995). 일자리가 해결이 되면 여가 만족도 및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생활만족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藤(2022)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지방 이주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주의식이 생긴 사람은 고수입, 정규직 고용자이고 이주처로서 대도시권을 지향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藤(2022)는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고용기회의 격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藤(2022)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의 일환으로 텔레워킹이 추진되고 있지만, 텔레워킹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규직 고용과 고소득층에 국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및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취업자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1-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따라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1-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따라 직업 선택에 관한 의식 및 행동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업자의 일하는 방식과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따라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따라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경험과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업자의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3-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3-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용형태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3-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일본 내각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직후(2020년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생활의식 및 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각 조사의 조사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회 조사는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제2회 조사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 제3회 조사는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 제4회 조사는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이고, 조사대상자는 일본 국내 거주자 중 전국의 15세 이상의 남녀이며 응답자수는 각 회 10,128명이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펼친 정책의 개요를 보면,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제1회 긴급사태선언이 있었고, 2021년 1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제2회 긴급사태선언이 있었다. 또한, 2021년 4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3회 긴급사태선언, 2021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회 긴급사태선언이 있었다. 긴급사태선언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 자제 요청, 학교 등을 포함한 시설이용 정지 명령, 음악 및 스포츠 이벤트 등의 개최 제한 요청 등을 골자로 한다. 제1회 조사는 제1회 긴급사태선언 종료 직후에 실시되었고, 제4회 조사는 긴급사태선언이 끝나는 시점에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1회 조사 및 제4회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20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713명이다.

분석 자료는 제1회 조사와 제4회 조사의 개인 아이디를 기준으로 단기종단자료의 형태로 구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와 2년 후의 시기별로 일하는 방식,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두 시점 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 평균(M)과 표준편차(SD) 등의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두 시점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STATA 16.0을 사용하였다.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일과 생활에 관한 의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귀하의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을 중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 1. 코로나19 확산 전보다도 생활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 2. 코로나19 확산 전보다도 일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 3. 변화없음 4. 잘 모르겠다
직업 선택에 관한 의식 및 행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12월)과 비교해서 직업 선택과 직업 선택에 대한 희망은 변화하였습니까” (복수응답형 질문) 1. 변화없음 2.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미래의 일과 수입에 대해서 생각 하게 됨 3. 희망하는 직장과 전직할 직장이 변화함 4. 부업을 가짐 5. 새로운 부업을 검토하기 시작함 6. 전직함 7. 새롭게 전직을 검토하기 시작함 8. 기타 9. 잘 모르겠다
일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의 현재의 일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텔레워크(거의 100%) 2. 텔레워크 중심(50%이상)이고, 정기적으로 출근을 병용 3. 출근중심(50%이상)이고 정기적으로 텔레워크를 병용 4. 기본적으로 출근이고, 부정기적으로 텔레워크를 이용 5. 주4일, 주3일 등의 근무일 제한 6. 시차출근과 플렉스타임에 의한 근무 7. 특별휴가취득 등에 의한 근무시간감축 8. 기타 9. 어떤 방식도 실시하지 않음 - 1과 2는 ‘텔레워크’로 분류, 3과 4는 ‘출근 중심’으로 분류, 5, 6, 7은 ‘유연근무’로 분류, 9는 ‘경험없음’으로 분류.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동경권 지역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조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였는가”로 질문 1. 관심이 높아졌다 2. 관심이 약간 높아졌다 3. 변함없음 4. 관심이 약간 낮아졌다 5. 관심이 낮아졌다 - ‘1~2’는 ‘관심이 높아짐’, ‘3’은 ‘변함없음’, ‘4~5’는 ‘관심이 낮아짐’으로 재분류함. • 제4회 조사에서는 “현재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는가” 로 질문 1. 매우 관심이 있다 2. 관심이 있다 3. 약간 관심이 있다 4. 거의 관심이 없다 5. 전혀 관심이 없다 - ‘1~3’은 ‘관심 있음’, ‘4~5’는 ‘관심 없음’으로 재분류함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진 이유 (제4회 조사만. 동경권 거주자 중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텔레워크에 의해서 지방에서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일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2. 생필품쇼핑, 교육, 의료 등이 온라인에 의해서 지금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3. 현재 거주지의 코로나19 확산 리스크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4.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5.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이 풍부한 환경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6. 라이프 스타일을 도시부에서의 일 중심에서 지방에서의 생활 중심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7.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장래의 라이프플랜을 다시 생각했기 때문에 8. TV 및 인터넷 등에서 지방 이주에 관한 정보를 보고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교우관계 및 커뮤니티 등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조사됨. • 제1회 조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현재(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얻어짐. • 제4회 조사에서는 현재(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얻어짐. •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 (0점) - ‘매우 만족하고 있다’ (10점)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1차 조사 기준)

		(n=1,713)	
		변수	빈도(%) / M(SD)
성별	남성		1,036(60.5)
	여성		677(39.5)
연령계층	20대		225(13.1)
	30대		327(19.1)
	40대		438(25.6)
	50대		434(25.3)
	60대 이상		289(16.9)
학력	고졸 이하		452(26.4)
	전문학교 · 단기대학		367(21.4)
	대졸 이상		894(52.2)
혼인상태	기혼		1,058(61.8)
	미혼		514(30.0)
거주 지역	이혼 및 사별		141(8.2)
	동경권		1,195(69.8)
고용형태	동경권 이외		518(30.2)
	정규직		1,095(63.9)
	비정규직		454(26.5)
가구 연간소득	자영업		164(9.6)
	300만엔 미만		279(16.3)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636(37.1)
본인 연간소득	600만엔 이상		799(46.6)
	200만엔 미만		440(25.7)
	200만엔 이상 400만엔 미만		521(30.4)
	4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369(21.5)
	600만엔 이상		383(22.4)

〈표 2〉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제1차 조사 기준)을 제시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0.5%, 여성이 39.5%를 차지하였다. 연령계층을 보면 20대는 13.1%, 30대는 19.1%, 40대는 25.6%, 50대는 25.3%, 60대 이상은 16.9%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 26.4%, 전문학교 및 단기대학 21.4%, 대졸 이상이 52.2%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이 61.8%, 미혼이 30.0%, 이혼 및 사별이 8.2%를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은 동경권 거주자가 약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은 63.9%, 비정규직은 26.5%, 자영업은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연간소득을 보면, 300만엔 미만은 16.3%,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은 37.1%, 600만엔 이상은 46.6%였다. 본인 연간소득을 보면, 200만엔 미만은 25.7%, 200만엔 이상 400만엔 미만은 30.4%, 4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은 21.5%, 600만엔 이상은 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1)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

〈표 3〉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2019년 12월 이후)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2021년 9월 이후)의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혼인상태, 거주 지역)과 직업적 특성(고용형태, 가구 연간소득, 본인 연간소득) 별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도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45.8%이었던 것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도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표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생활을 중시	일을 중시	변화 없음	잘 모름	합계	χ^2		
전체	t1	784(45.8)	81(4.7)	770(45.0)	78(4.6)	1,713(100)	116.74***		
	t2	529(30.9)	56(3.3)	1,084(63.3)	44(2.6)	1,713(100)			
성별	남성	t1	484(46.7)	45(4.3)	463(44.7)	44(4.3)	1,036(100)	77.87***	
		t2	314(30.3)	31(3.0)	663(64.0)	28(2.7)	1,036(100)		
	여성	t1	300(44.3)	35(5.3)	307(45.4)	34(5.0)	677(100)	40.34***	
		t2	251(31.8)	25(3.7)	421(62.2)	16(2.4)	677(100)		
인구학적 특성	20대	t1	129(57.3)	17(7.6)	72(32.0)	7(3.1)	225(100)	7.23 [†]	
		t2	75(44.9)	11(6.6)	73(43.7)	8(4.8)	167(100)		
	30대	t1	160(48.9)	17(5.2)	129(40.0)	21(6.4)	327(100)	21.03***	
		t2	119(35.6)	14(4.2)	190(56.9)	11(3.3)	334(100)		
	연령계층	40대	t1	200(45.7)	18(4.1)	198(45.2)	22(5.0)	438(100)	41.50***
			t2	129(30.0)	12(2.8)	285(66.0)	6(1.4)	432(100)	
		50대	t1	167(38.5)	21(4.8)	225(51.8)	21(4.8)	434(100)	31.74***
			t2	104(24.1)	10(2.3)	304(70.4)	14(3.2)	432(100)	
	60대	t1	128(44.3)	8(2.8)	146(50.5)	7(2.4)	289(100)	17.58**	
		t2	102(29.3)	9(2.6)	232(66.7)	5(1.4)	348(100)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생활을 중시	일을 중시	변화 없음	잘 모름	합계	χ^2		
기혼	t1	506(47.8)	40(3.8)	475(44.9)	37(3.5)	1,058(100)	91.94***		
	t2	320(29.7)	33(3.1)	704(65.4)	20(1.9)	1,077(100)			
혼인상태	미혼	t1	416(42.0)	33(6.4)	236(45.9)	29(5.6)	514(100)	14.66**	
	t2	171(35.0)	19(3.9)	280(57.4)	18(3.7)	488(100)			
이혼/사별	t1	62(44.0)	8(5.7)	59(41.8)	12(8.5)	141(100)	19.51***		
	t2	38(25.7)	4(2.7)	100(67.6)	6(4.1)	148(100)			
거주 지역	동경권	t1	271(52.3)	15(2.9)	210(40.5)	22(4.3)	518(100)	40.76***	
		t2	178(34.6)	16(3.1)	308(59.9)	12(2.3)	514(100)		
	동경권이외	t1	513(42.9)	66(5.5)	560(46.9)	56(4.7)	1,195(100)	78.21***	
		t2	351(29.3)	40(3.3)	776(64.7)	53(2.7)	1,199(100)		
고용형태	정규직	t1	533(48.7)	50(4.6)	464(42.4)	48(4.4)	1,095(100)	82.59***	
		t2	356(33.1)	31(2.9)	665(61.8)	25(2.3)	1,077(100)		
	비정규직	t1	182(40.1)	25(5.5)	229(50.4)	18(4.0)	454(100)	31.07***	
		t2	124(25.8)	16(3.3)	328(68.3)	12(2.5)	480(100)		
	자영업	t1	69(42.1)	6(3.7)	77(47.0)	12(7.3)	164(100)	6.28 ⁺	
		t2	49(31.4)	9(5.8)	91(58.3)	7(4.5)	156(100)		
직업적 특성	300만엔 미만	t1	107(38.4)	21(7.5)	135(48.4)	16(5.7)	279(100)	14.77**	
		t2	79(27.0)	12(4.1)	187(63.8)	15(5.1)	293(100)		
	300만엔 이상	t1	280(44.1)	29(4.6)	291(45.8)	35(5.5)	635(100)	37.87***	
		t2	198(31.6)	24(3.8)	390(62.3)	14(2.2)	626(100)		
	600만엔 미만	t1	397(50.0)	31(3.9)	344(43.1)	27(3.4)	799(100)	60.40***	
		t2	252(31.7)	20(2.5)	507(63.9)	15(1.9)	794(100)		
	600만엔 이상	t1	165(37.5)	34(7.7)	206(46.8)	35(8.0)	400(100)	24.58***	
		t2	122(27.1)	21(4.7)	285(63.2)	23(5.1)	451(100)		
	본인연간 소득	200만엔 미만	t1	238(45.7)	18(3.5)	247(47.4)	18(3.5)	521(100)	29.96***
		400만엔 미만	t2	153(31.2)	15(3.1)	315(64.2)	8(1.6)	491(100)	
		400만엔 이상	t1	184(50.0)	19(5.2)	151(40.9)	15(4.1)	369(100)	
		600만엔 미만	t2	134(35.3)	11(2.9)	228(60.0)	7(1.8)	380(100)	
600만엔 이상	t1	197(51.4)	19(2.6)	166(43.3)	10(2.6)	383(100)	38.87***		
	t2	120(30.7)	9(2.3)	256(65.5)	6(1.5)	391(100)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2019년 12월이후)는 t1,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2021년 9월이후)는 t2로 표기한다.

2년 후에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3.3%였고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와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30.9%, 3.3%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46.7%, 44.3%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30%대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7.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는데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7.6%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44.92%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보다

는 낮아진 반면,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6.6%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 양상이 다른 연령층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기혼과 미혼 각각 47.8%, 42.0%였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29.7%,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미혼의 경우에 ‘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경권의 경우에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48.7%로 비정규직 및 자영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직업 선택에 관한 의식 및 행동 변화			앞으로의 일과 수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됨	희망하는 직장 및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이 변화함	부업을 가지게 됨	새로운 부업을 검토하게 됨	전직함	새롭게 전직을 검토하게 됨	
고용형태	정규직	t1	291(26.6)	27(2.5)	16(1.5)	74(6.8)	3(0.3)	56(5.1)	
		t2	189(17.6)	27(2.5)	23(2.1)	41(3.8)	26(2.4)	47(4.4)	
	비정규직	t1	112(46.7)	8(1.8)	6(1.3)	33(7.3)	5(1.1)	26(5.7)	
		t2	63(13.1)	13(2.7)	18(3.8)	16(3.3)	20(4.2)	27(5.6)	
	자영업	t1	56(34.2)	1(0.6)	4(2.4)	15(9.2)	1(0.6)	5(3.1)	
		t2	25(16.0)	1(0.6)	8(5.1)	7(4.5)	1(0.6)	2(1.3)	
직업적 특성	가구 연간소득	300만엔 미만	t1	4(1.4)	4(1.4)	6(2.2)	18(6.5)	2(0.7)	22(7.9)
			t2	5(1.7)	5(1.7)	12(4.1)	13(4.4)	12(4.1)	21(7.2)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t1	173(27.2)	13(2.1)	16(2.5)	53(8.4)	4(0.6)	35(5.5)
			t2	112(17.9)	18(2.9)	24(3.8)	24(3.8)	16(2.6)	23(3.7)
		600만엔 이상	t1	209(26.2)	19(2.4)	4(0.5)	51(6.4)	3(0.4)	30(3.8)
			t2	110(13.9)	18(2.3)	13(1.6)	27(3.4)	19(2.4)	32(4.0)
	본인 연간소득	200만엔 미만	t1	118(26.8)	4(0.9)	10(2.3)	32(7.3)	2(0.5)	21(4.8)
			t2	80(17.7)	10(2.2)	16(3.6)	16(3.6)	11(2.4)	24(5.3)
		200만엔 이상 400만엔 미만	t1	153(29.4)	8(1.5)	7(1.3)	43(8.3)	5(1.0)	32(6.1)
			t2	84(17.1)	13(2.7)	16(3.3)	20(4.1)	21(4.3)	25(5.1)
		4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t1	99(26.8)	10(2.7)	7(1.9)	23(6.2)	1(0.3)	21(5.7)
			t2	45(14.7)	7(1.8)	12(3.2)	17(4.5)	5(1.3)	12(3.2)
600만엔 이상	t1	89(23.2)	14(3.7)	2(0.5)	24(6.3)	1(0.3)	13(3.4)		
	t2	57(14.6)	11(2.8)	5(1.3)	11(2.8)	10(2.6)	15(3.8)		

주) 복수응답임.

업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12.4%)과 ‘새롭게 전직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9.3%)이 높았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새롭게 전직을 검토하였다’는 응답이 약간 증가하였고, 실제로 전직할 비율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40대에서도 ‘새로운 부업을 검토하게 되었다’와 ‘새롭게 전직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0대, 60대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의 경우에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각각 ‘앞으로의 일과 수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새로운 부업을 검토하게 되었다’, ‘새롭게 전직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기혼보다 높은 특성이 있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장래의 일과 수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46.7%였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전직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4.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업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비해서 높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9.5%,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일하는 방식과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험한 일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5〉 참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텔레워크’의 방식을 경험한 비율이 20.1%, ‘유연근무’ 경험이 20.0%, ‘출근중심’의 경우는 14.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보다는 2년 후에 ‘출근중심’의 비중이 19.9%로 늘어난 반면, ‘텔레워크’, ‘유연근무’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권(동경,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에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텔레워크’를 경험한 비율은 36.1%로 전국의 응답과 비교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유연근무’는 24.5%, ‘출근중심’은 14.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텔레워크’는 24.5%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도 전국에 비해서 ‘텔레워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권 거주자에 한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보면, 텔레워크의 경험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동경권 지역의 남성 취업자의 43.4%가 텔레워크를 경험하였고, 유연근무의 경험은 23.5%로

〈표 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험한 일하는 방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험한 일하는 방식		텔레워크	출근중심	유연근무	경험없음		
전체	t1	344(20.1)	244(14.2)	342(20.0)	710(41.5)		
	t2	209(12.2)	340(19.9)	227(13.3)	897(52.4)		
동경권 거주자	t1	187(36.1)	76(14.7)	127(24.5)	138(26.6)		
	t2	126(24.5)	116(22.6)	66(12.8)	209(40.7)		
성별	남성	t1	135(43.4)	57(18.3)	73(23.5)	69(22.2)	
		t2	87(28.2)	84(27.2)	34(11.0)	107(34.6)	
	여성	t1	52(25.1)	19(9.2)	54(26.1)	69(33.3)	
		t2	39(19.0)	32(15.6)	32(15.6)	102(49.8)	
인구학적특성 (동경권 거주자)	20대	t1	25(41.0)	13(21.3)	20(32.8)	11(18.0)	
		t2	5(11.6)	14(32.6)	7(16.3)	18(41.9)	
	30대	t1	31(31.0)	15(15.0)	26(26.0)	32(32.0)	
		t2	24(26.1)	18(19.6)	9(9.8)	44(47.8)	
	연령계층	40대	t1	53(37.1)	25(17.5)	31(21.7)	32(22.4)
			t2	40(27.4)	37(25.3)	14(9.6)	54(37.0)
	50대	t1	43(32.8)	17(13.0)	30(22.9)	43(32.8)	
		t2	31(23.7)	28(21.4)	18(13.7)	53(40.5)	
	60대	t1	35(42.2)	6(7.2)	20(24.1)	20(24.1)	
		t2	26(25.5)	19(18.6)	18(17.7)	40(39.2)	
	혼인상태	기혼	t1	122(36.3)	57(17.0)	76(22.6)	88(26.2)
			t2	86(25.2)	80(23.5)	14(13.5)	133(39.0)
미혼		t1	54(38.6)	13(9.3)	40(28.6)	37(26.4)	
		t2	34(25.8)	26(19.7)	17(12.9)	55(41.7)	
이혼/사별	t1	11(26.2)	6(14.3)	11(26.2)	13(31.0)		
	t2	6(14.6)	10(24.4)	3(7.3)	21(51.2)		
고용형태	정규직	t1	143(41.2)	70(20.2)	92(26.5)	68(19.6)	
		t2	93(26.7)	96(27.6)	40(11.5)	126(36.2)	
	비정규직	t1	24(19.2)	5(4.0)	28(22.4)	53(42.4)	
		t2	14(11.6)	13(10.7)	23(19.0)	70(57.9)	
	자영업	t1	20(43.5)	1(2.2)	7(15.2)	17(37.0)	
		t2	19(42.2)	7(15.6)	3(6.7)	13(28.9)	
직업적 특성 (동경권 거주자)	가구 연간소득	300만엔 미만	t1	16(26.7)	3(5.0)	16(26.7)	22(36.7)
		t2	12(23.5)	5(9.8)	9(17.7)	26(51.0)	
	300만엔 이상	t1	47(29.4)	19(11.9)	40(25.0)	56(35.0)	
		t2	35(20.0)	37(21.1)	23(13.1)	79(45.1)	
	600만엔 미만	t1	124(41.6)	54(18.1)	71(23.8)	60(20.1)	
		t2	79(27.4)	74(25.7)	34(11.8)	104(36.1)	
	200만엔 미만	t1	13(13.3)	7(7.1)	16(16.3)	45(45.9)	
		t2	13(13.8)	9(9.6)	17(18.1)	50(53.2)	
	200만엔 이상	t1	36(25.2)	16(11.2)	40(28.0)	45(31.5)	
		t2	25(18.3)	27(19.7)	19(13.9)	68(49.6)	
	본인 연간소득	400만엔 미만	t1	50(42.0)	23(19.3)	32(26.9)	25(21.0)
		t2	29(23.8)	29(23.8)	14(11.5)	50(41.0)	
400만엔 이상		t1	88(55.7)	30(19.0)	39(24.7)	23(14.6)	
t2		59(36.7)	51(31.7)	16(10.0)	41(25.5)		

나타났다. 동경권 지역의 여성 취업자의 25.1%가 텔레워크를 경험하였고, 유연근무 경험비율은 26.1%인 것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를 보면, 텔레워크 중심 경험은 남성은 28.2%, 여성은 19.0%였다.

연령계층별로 어떠한 일하는 방식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20대와 60대에서 ‘텔레워크 중심 경험’을 한 비율이 약 4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는 20대에 32.8%였고, 30대는 26.0%로 나타났다. 40대 및 60

대에서는 각각 21.7%, 24.1%로 나타났다. 20대의 특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텔레워크 중심’ 경험자의 비율과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차이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텔레워크 중심’ 경험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의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출근중심’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30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와 코로나 팬데믹 2년 후의 ‘텔레워크 중심’ 경험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특징이 있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기혼과 미혼 각각 36.3%, 38.6%가 텔레워크 중심을 경험하였고, 유연근무 경험은 각각 22.6%,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텔레워크’ 비율이 정규직은 41.2%, 비정규직은 19.2%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비해서 정규직의 ‘텔레워크’를 경험한 비율이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으로 자영업의 ‘텔레워크’ 경험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및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각각 43.5%, 42.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영업의 분류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재택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인 연간소득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본인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텔레워크’ 경험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 55.7%가 ‘텔레워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연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및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텔레워크’ 경험비율에 변화가 없었고, ‘유연근무’의 경험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16.3%)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18.1%)에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6〉에는 동경권 거주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제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조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조사에서는 “현재,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지방 이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8.2%였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33.9%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의 약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동경권 거주자의 경우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변화	낮아짐/관심없음	변화없음	높아짐/관심있음	합계	χ^2	
동경권 거주자	t1		26(5.0)	398(76.8)	94(18.2)	518(100)	691.26***	
	t2		340(66.2)	—	174(33.9)	514(100)		
성별	남성	t1	7(2.3)	237(76.2)	67(21.5)	311(100)	421.53***	
		t2	190(61.5)	—	119(38.5)	309(100)		
	여성	t1	19(9.2)	161(77.8)	27(13.0)	207(100)	272.10***	
		t2	150(73.2)	—	55(26.8)	205(100)		
인구학적 특성 (동경권 거주자)	20대	t1	7(11.5)	38(62.3)	16(26.2)	61(100)	43.71***	
		t2	40(46.5)	—	23(53.5)	43(100)		
	30대	t1	2(2.0)	79(79.0)	19(19.0)	100(100)	134.91***	
		t2	57(62.0)	—	35(38.0)	92(100)		
	연령계층	40대	t1	7(4.9)	110(76.9)	26(18.2)	143(100)	193.18***
			t2	93(63.7)	—	53(36.3)	146(100)	
50대	t1	7(5.3)	102(77.9)	22(16.8)	131(100)	185.96***		
	t2	102(77.9)	—	29(22.1)	131(100)			
60대	t1	3(3.6)	69(83.1)	11(13.3)	83(100)	139.79***		
	t2	68(66.7)	—	34(33.3)	102(100)			
혼인형태	기혼	t1	16(4.8)	255(75.9)	65(19.4)	336(100)	451.11***	
		t2	226(66.3)	—	115(33.7)	341(100)		
	미혼	t1	9(6.4)	107(76.4)	24(17.1)	140(100)	174.61***	
		t2	82(62.1)	—	50(37.9)	132(100)		
	이혼/사별	t1	1(2.4)	36(85.7)	54(11.9)	42(100)	66.26***	
		t2	53(78.1)	—	9(22.0)	41(100)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변화		낮아짐/관심없음	변화없음	높아짐/관심있음	합계	χ^2			
고용형태	정규직	t1	18(5.2)	255(73.5)	74(21.3)	347(100)	441.40***		
		t2	221(63.5)	—	127(36.5)	348(100)			
	비정규직	t1	4(3.2)	109(87.2)	12(9.6)	125(100)		197.05***	
		t2	93(76.9)	—	28(23.1)	121(100)			
	자영업	t1	4(8.7)	34(73.9)	8(17.4)	46(100)		54.61***	
		t2	26(57.8)	—	19(42.2)	45(100)			
직업적 특성 (동경권 거주자)	300만엔 미만	t1	3(5.0)	49(81.7)	8(13.3)	60(100)	79.86***		
		t2	38(74.5)	—	13(25.5)	51(100)			
	가구 연간소득	300만엔 이상	t1	7(4.4)	128(80.0)	25(15.6)	160(100)	235.68***	
		600만엔 미만	t2	108(61.7)	—	67(38.3)	175(100)		
	600만엔 이상	t1	16(5.4)	221(74.2)	61(20.5)	298(100)	378.84***		
		t2	194(67.4)	—	94(32.6)	288(100)			
	본인 연간소득	200만엔 미만	t1	7(7.1)	82(83.7)	9(9.2)	98(100)	140.62***	
			t2	71(75.5)	—	23(24.5)	94(100)		
		200만엔 이상	t1	10(7.0)	111(77.6)	22(15.4)	143(100)		183.65***
			t2	89(65.0)	—	48(35.0)	137(100)		
		400만엔 이상	t1	1(0.8)	86(72.3)	32(26.9)	119(100)		161.55***
			t2	76(62.3)	—	46(37.7)	122(100)		
600만엔 이상	t1	8(5.1)	119(75.3)	31(19.6)	158(100)	208.96***			
t2	104(64.6)	—	57(35.4)	161(10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은 21.5%, 여성은 13.0%로, 여성보다 남성이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대에서 26.2%로 가장 높았고, 30대 19.0%, 40대 18.2%, 50대 16.8%, 60대이상 13.3%로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53.5%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0대는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낮은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기혼 경우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미혼에 비해서 높은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더 높은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21.3%,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36.5%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42.4%로 정규직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연간소득별로 보면, 연간소득이 높을 경우에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4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의 경우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2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37.7%로 높았다.

동경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에 따른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7>에 제

<표 7> 일하는 방식에 따른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동경권 거주자의 경우)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조금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합계
텔레워크	6(4.8)	16(12.7)	29(23.0)	31(24.6)	44(34.9)	126(100)
출근 중심	1(0.9)	15(12.9)	26(22.4)	33(28.5)	41(35.3)	116(100)
유연 근무	4(6.1)	10(15.2)	12(18.2)	12(18.2)	28(42.4)	66(100)

주) 제4회 조사만 분석함.

시하였다. 텔레워크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한 사람과 유연근무를 경험한 사람이 지방 이주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출근 중심으로 일한 사람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는 일하는 방식 경험별로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제시하였다. ‘텔레워크를 통해서 지방으로 이주해서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일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텔레워크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한 그룹에서 45.8%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라이프 스타일을 도시부에서의 일 중심에서 지방에서의 생활 중심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출근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한 그룹에서 24.5%로, 다른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이 풍부한 환경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유연 근무 경험 그룹에서 4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워크의 경험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지방 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생활만족도 변화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생활의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표 9〉 참조).

1)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생활만족도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조사에서는 ‘전체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교우관계 및 커뮤니티 등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각각의 영역에 관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현재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조사에서는 각각의 영역에 관해서 현재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되었다. 즉, 생활만족도 각 영역에 관해서 세 시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체 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각각의 영역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다소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교우관계 및 커뮤니티 등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가 그 다음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도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의 회복이 다소 더딘을 알 수 있다.

2) 일하는 방식의 경험 및 고용형태와 생활만족도

〈표 10〉에는 일하는 방식의 경험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텔레워크 경험자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코로나19

〈표 8〉 일하는 방식 경험별로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진 이유

	텔레워크	출근중심	유연근무
텔레워크를 통해 지방으로 이주해서도 지금과 동일하게 일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27(45.8)	14(28.6)	4(13.3)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이 풍부한 환경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17(28.8)	14(28.6)	13(43.3)
라이프 스타일을 도시부에서의 일 중심에서 지방에서의 생활 중심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12(20.3)	12(24.5)	5(16.7)
감염병을 계기로 장래의 라이프플랜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6(10.2)	4(8.2)	2(6.7)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에서 지방 이주에 관한 정보를 보고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6(10.2)	5(10.2)	1(3.3)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감염병 리스크가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5(8.5)	8(16.3)	6(20.0)
일상생활용품 구매, 교육, 의료 등을 온라인으로 통해 지금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7(11.9)	7(14.3)	4(13.3)

주) 제4회 조사에서만 조사됨. 동경권 거주자 중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함.

〈표 9〉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생활만족도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t값
전체 생활만족도	6.77	5.45	6.69	-16.17 ***
건강상태 만족도	7.04	6.23	6.82	-7.871 ***
일에 대한 만족도	6.74	5.87	6.34	-6.125 ***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6.83	5.33	6.35	-14.25 ***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7.15	5.32	6.68	-18.03 ***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t값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및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두시점을 비교한 결과임.

〈표 10〉 일하는 방식의 경험과 생활만족도 변화의 관계

	텔레워크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n=344)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n=344)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n=209)	
전체 생활만족도	7.01	6.10	7.15	-5.639 ^{***}
건강상태 만족도	7.22	6.49	6.84	-1.914 [†]
일에 대한 만족도	6.97	6.24	6.70	-2.204 [*]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7.04	5.44	6.21	-4.308 ^{***}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7.36	5.66	6.87	-6.447 ^{***}
	출근중심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n=244)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n=244)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n=340)	
전체 생활만족도	6.61	5.38	6.84	-8.302 ^{***}
건강상태 만족도	7.01	6.25	7.04	-4.391 ^{***}
일에 대한 만족도	6.47	5.86	6.28	-2.387 [*]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6.80	5.33	6.40	-6.270 ^{***}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7.16	5.39	6.89	-8.622 ^{***}
	유연근무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n=342)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n=342)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n=227)	
전체 생활만족도	6.70	5.49	6.96	-7.644 ^{***}
건강상태 만족도	7.10	6.27	6.93	-3.453 ^{***}
일에 대한 만족도	6.68	5.82	6.53	-3.636 ^{***}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6.87	5.32	6.59	-6.881 ^{***}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7.17	5.25	6.72	-7.465 ^{***}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t값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및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두시점을 비교한 결과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감소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연근무 경험자의 경우, 전체적인 생활만족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크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및 커뮤니티 등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는 텔레워크 경험자 및 유연근무 경험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다른 영역의 만족도보다 크게 떨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다소 만족도 수준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중심의 일하는 방식 경험자의 경우, 일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텔레워크 경험자 및 유연근무 경험자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텔레워크 경험자보다는 낮지만 유연근무 경험자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는 고용형태와 생활만족도 변화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전체 생활만족도는 일하는 방식의 경험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자영업의 경우 코로나19 이

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다소 회복을 하기는 하나,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비해서 일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비정규직, 자영업, 정규직 순으로 높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자영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와의 연결에 대한 만족도는 비정규직에서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정규직, 자영업, 비정규직 순으로 높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비정규직, 자영업, 정규직 순으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영향은 비정규직의 경우에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과 생활만족도

〈표 12〉에는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별로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11〉 고용형태와 생활만족도 변화의 관계

	정규직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n=1,095)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n=1,095)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n=1,077)	
전체 생활만족도	6.72	5.52	6.75	-12.91 ***
건강상태 만족도	6.99	6.27	6.89	-6.668 ***
일에 대한 만족도	6.66	5.95	6.31	-3.735 ***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6.79	5.38	6.34	-11.020 ***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7.11	5.37	6.70	-14.3 ***
	비정규직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n=454)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n=454)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n=480)	
전체 생활만족도	6.89	5.31	6.53	-8.143 ***
건강상태 만족도	7.13	6.09	6.70	-4.122 ***
일에 대한 만족도	6.86	5.81	6.46	-4.335 ***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6.92	5.26	6.31	-7.405 ***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7.22	5.20	6.57	-9.377 ***
	자영업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n=164)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n=164)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n=156)	
전체 생활만족도	6.80	5.32	6.76	-5.480 ***
건강상태 만족도	7.11	6.35	6.74	-1.526
일에 대한 만족도	6.94	5.49	6.22	-2.744 **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6.82	5.18	6.49	-5.232 ***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7.20	5.28	6.85	-5.802 ***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t값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및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두시점을 비교한 결과임.

〈표 12〉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과 생활만족도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별 생활만족도 변화	전체 생활만족도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낮아짐(관심없음)	7.23	5.58	6.76	-2.687 **
높아짐(관심있음)	6.68	5.63	6.52	-2.952 **
	건강상태 만족도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낮아짐(관심없음)	7.08	5.96	6.75	-1.880 †
높아짐(관심있음)	6.95	5.90	6.55	-2.210 †
	일에 대한 만족도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낮아짐(관심없음)	7.19	4.88	6.45	-3.467 ***
높아짐(관심있음)	6.52	5.89	5.94	-0.149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낮아짐(관심없음)	7.27	4.69	6.39	-4.154 ***
높아짐(관심있음)	6.67	5.14	5.98	-3.235 **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t값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낮아짐(관심없음)	7.69	4.38	6.79	-5.541 ***
높아짐(관심있음)	7.10	5.38	6.47	-4.010 ***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t값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및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 두시점을 비교한 결과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룹은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그룹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생활만족도가 5.58에서 5.63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을 비교해 보면, 관심이 있는 그룹보다는 관심이 없는 그룹의 생활만족도가 6.76보다 6.52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에 반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지방 이주에 관심을 높여 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두 시기(코로나19 팬데믹 직후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일하는 방식,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생활만족도 등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적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양식을 새롭게 모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시기에 인구 감소 및 지방 도시에서 수도권 및 지역 광역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경험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지방 이주에 관한 대량 조사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분석하였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 자제 요청, 학교 등을 포함한 시설이용 정지 명령, 음악 및 스포츠 이벤트 등의 개최 제한 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사태선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제1회 긴급사태선언이 있었고, 2021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회 긴급사태선언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1회 및 제4회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제1회 조사는 제1회 긴급사태선언 종료 직후 실시되었고, 제4회 긴급사태선언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분석은 제1회 조사 및 제4회 조사 모두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20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젊은 층 특히 20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일과 생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양상이 다른 연령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및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 높았는데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직후 직업 선택에 관한 의식에 있어서 20대의 특징으로 '새로운 부업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12.4%)과 '새롭게 전직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9.3%)이 높았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새롭게 전직을 검토하였다'는 응답이 약간 증가하였고, 실제로 전직한 비율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젊은 층의 일에 대한 인식을 설명할 때, '일에 있어서의 코스트 퍼포먼스'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리크르트ワクス 研究所(2021)에 따르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이력에 남을 만한 성과를 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그룹과 가능한 한 잔업을 피하고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평균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만족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에 가치를 두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リク르트ワクス 研究所, 2021). 젊은 층이 추구하는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지방 이주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20대에서 26.2%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53.5%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젊은 층에 있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자유로운 텔레워크와 같은 일하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 시간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과 생활의 미래계획에 관한 선호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층이 지방 이주를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업 선택에 대한 의식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텔레워크의 경험비율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동경권 지역의 남성 취업자의 43.4%가 텔레워크 중심을 경험하였고, 유연근무 경험비율은 23.5%로 나타났다. 동경권 지역의 여성 취업자의 25.1%가 텔레워크를 경험하였고, 유연근무 경험비율은 26.1%인 것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를 보면, 텔레워크 중심 경험은 남성은 28.2%, 여성은 19.0%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21)에서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재택근무 경험률이 다른 직종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의 결과도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 및 텔레워크 이용가능성 등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혹은 '지방 이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21.3%,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는 36.5%였다. 또한, 본인 연간소득별로 보면, 본인 연간소득이 높을 경우에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혹은 '지방 이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특성별 결과를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덜 받는 경우 일수록 즉 정규직 혹은 고소득자인 경우에 일보다는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경권에서 지방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総務省(2021)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지방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이러한 정책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텔레워크 등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해도 이용가능성에 있어서는 모든 취업자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텔레워크 등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에 있어서의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약간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증가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하였다'는 응답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보다 약간 높았는데 전직한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새로운 직장을 찾는 전직이 늘고, 여성은 부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성이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셋째, 일하는 공간과 시간이 자유로운 텔레워크의 실시 가능성에 있어서 지역차가 존재함이 다시 확인되었다. 동경권(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에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텔레워크 중심' 일하는 방식을 경험한 비율은 36.1%로 전국의 응답과 비교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연근무 경험'은 24.5%, '출근 중심'은 14.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텔레워크 중심'은 24.5%로 직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도 전국에 비해서 '텔레워크 중심'의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에 따른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에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텔레워크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한 사람과 유연근무를 경험한 사람이 지방 이주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출근 중심으로 일한 사람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로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일할 수 있다고 느껴서' 라는 응답 수준이 높았던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지방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취업가능성 이라고 하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이영준·이수진, 2016; 李·杉浦, 2017; 岡崎 et al., 2004; 金田 et al., 2009; 佐藤 et al., 2014; 鈴木 et al., 2011; 丸山, 2021).

다섯째, 생활만족도 각각의 영역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다소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별로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룹은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그룹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에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는 그룹과 관심이 없는 그룹을 비교해 보면, 관심이 있는 그룹보다는 관심이 없는 그룹의 생활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아진 것에 반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지방 이주에 관심을 높여 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과 생활의 양립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과 생활의 양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목을 받게 된 개념은 아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7년에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관민 톱 회의'에서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라이프밸런스)현장과 일과 생활의 조화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하였고(厚生労働省, 2022),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택근무와 단시간 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하는 현상과 함께 일과 생활의 양립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일과 생활을 동시에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노동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텔레워크의 보급 및 촉진은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 여건에 관한 정책을 관여하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적절한 노무관리하에서 텔레워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무관리의 유의점 등을 제시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장의 근무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보급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厚生労働省, 2022).

20여 년 전부터 일과 생활에 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라고 하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텔레워크 등의 경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일하는 방식과 지방 이주가 가지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시기에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 지방 도시에서 수도권 및 지역 광역 도시로의 인구 이동 및 인구 유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소멸의 우려와

함께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의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지방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모색하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회 조사와 제4회 조사에 모두 응답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기종단 자료를 구축하여, 두 시점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단기종단자료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취업자의 고용형태 변화를 데이터상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추적조사의 기간이 짧아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한 사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고용형태가 변화한 사람들이 부업을 시작했는지, 전직을 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같은 이유로, 지방으로 실제로 이주한 사람들을 특정해 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조사기간 중에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소수에 머물고 있어서 제1회 조사와 제4회 조사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분석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 직업 선택에 대한 의식 및 행동,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등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문항이 복수 응답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문항마다 선행 문항에서 조건이 충족된 응답자들이 응답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문항에 대해서 취업자의 중요 특성인 직종 및 소득 등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취업자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복적으로 조사된 자료에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 문항이 이용가능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방 이주'라고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지방 인구의 감소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사회인구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일과 생활의 경험을 유지하면서 거주지를 옮기는 형태라는 점에서 '귀촌' 혹은 '귀농'보다는 넓은 의미를 가지는 '지방 이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상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와 코로나19 팬데믹 2년 후의 변화를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Acknowledgements

These results are the result of a secondary analysis performed on raw data using data from 'Survey on Changes

in Attitudes and Behaviors in Daily Life under the Influence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2020', 'The 4th Survey on Changes in Attitudes and Behaviors in Daily Life under the Influence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2021' deposited by Japanese Cabinet Office stored in the Center for Social Survey and Data Archive located at The University of Tokyo's Institute of Social Science

참고문헌

- 1) 이영준·이수진(2016). UJI턴 형태의 지방회귀 및 정주 결정 요인. *지역사회연구*, 24(2), 163-180.
- 2)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 3)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2021). 직장인 코로나19 전후 변화.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90>.
- 4) 沼野夏生(1995). 過疎地域への転入定住者の実態と価値意識について—山形県過疎市町村を対象に—. *日本建築学会大学学術講演梗概集*, 399-400.
- 5) 李永俊·杉浦裕晃(2017). 地方回帰の決定要因とその促進策—青森県弘前市の事例から—.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3, 123-143.
- 6) 一般社団法人移住・交流推進機構(2022). <https://www.ij-join.jp/feature/guide/003/02.html>.
- 7) 石川義孝(2021). 코로나禍は東京一極集中を変えるか?. *学術の動向*, 26(11), 68-71.
- 8) NHK政治マガジン(2022.1.28). “東京一極集中”に変化の兆し 人口移動のデータと移住の現場, 地方潮流.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76267.html>에서 2022.06 인출
- 9) 岡崎京子·後藤春彦·山崎義人·樋口創士(2004). “Uターン者増加の過程における転入要因の変遷—宮崎県西米良村を事例として—”, *日本建築学会大学学術講演梗概集*, 669-670.
- 10) 金田俊輔·山口忠志·斎尾直子(2009). 自治体のUJIターン支援施策の評価と出身者の移住・定住意識に関する研究: 農山村地域における地域住民・出身者の居住歴からみた意識分析(その1). *日本建築学会大学学術講演梗概集*, 503-506.
- 11) クオリスWEBマガジン(2022a,5.24). 코로나禍で生活はどう変わった?~n=1からみる令和の新ライフスタイル~自主企画インタビューから見えた生活者のすがた連載第1回・働き方. <https://www.intage-qualis.co.jp/magazine/archives/2172/>에서 2022.06 인출
- 12) クオリスWEB(2022b,4.4). 코로나後も変化が定着するこ

- と1位は「働き方」～コロナ以前に戻るもの」「戻らないもの」は?。 <https://www.intage-qualis.co.jp/magazine/archives/2194/>에서 2022.06 인출
- 13) 後藤学・濱野和佳(20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流行下でのテレワークの実態に関する調査動向. INSS Journal: Journal of the Institute of Nuclear Safety System, 27, 252-274.
- 14) 厚生労働省(2022). 仕事と生活の調和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_kijun/shigoto/index.html.
- 15) 佐藤遼・城所哲夫・瀬田史彦(2014). 地方への移住関心層と移住可能層との間での地方移住生活イメージに対する選好パターンの違い—移住先地域での暮らし方・働き方の質に対するイメージに着目して—. 公益社団法人日本都市計画学会都市計画論文集, 49(3), 945-950.
- 16) 鈴木健史・森尾淳・内山久雄・寺部慎太郎(2011). 広島県におけるUJIターンの要因に関する研究—地域の特徴, UJIターン支援施策からみた分析—. 公益社団法人日本都市計画学会都市計画論文集, 46(3), 325-330.
- 17) 総務省(2021). 「地方への人の流れの創出」に向けた効果的移住定住推進施策事例集.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chiho_jju.html에서 2021.06 인출
- 18) 藺田碩哉(2020). コロナ禍が示唆する新しい生活と社会—既存の枠組みからいかにして脱出するか—. 敬心・研究ジャーナル, 4(2), 1-13.
- 19) 高見具広(2020). コロナ禍による仕事・生活への影響—JILPT 個人調査(5月・8月)の結果から— 厚生労働省 第2回 雇用政策研究会. <https://www.mhlw.go.jp/content/11601000/000694883.pdf>.
- 20) 膝媛媛(2022). コロナ禍が東京都に居住する若年層の移住意識に与える影響. 季刊地理学, 3(4), 250-263.
- 21) 内閣府地域創成テレワーク(2022). 働き方を変えると'生き方が変わる'. <https://www.chisou.go.jp/chitele/about/index.html>.
- 22) 日刊スポーツ(2022.8.9.). 'コロナ禍の結婚15万件減'減少分の埋め合わせないと24万3000人の出生 減る可能性'. <https://www.nikkansports.com/general/news/202208090000155.html>에서 2022.08 인출
- 23) 日本経済新聞(2020.9.6). 女性雇用 コロナの逆風 職種転換へ支援急務.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C63497850V00C20A9MM8000/>에서 2022.08 인출.
- 24) 日本経済新聞(2022.6.24). 'NTT' 3万人原則在宅 島田社長「働き方」社員が選ぶ.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21BJ70R20C22A6000000/>에서 2022.08 인출
- 25) 日本経済新聞(2022.2.1). 就業者数' コロナ前回復遠く 21年は9万人減'.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12CHOR00C22A2000000/>에서 2022.08 인출
- 26) 日本経済新聞(2022.7.3). 50歳時未婚率' 男性3割近くに 経済不安背景に減る結婚 男性で28.3%' 女性で17.8%.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K24A000U2A620C2000000/>에서 2022.08 인출
- 27) 日本テレワーク協会(2022). テレワークとは—. https://japan-telework.or.jp/tw_about/.
- 28) PRESIDENT WOMAN Online(2022.1.22). コロナ禍の中で全社的なテレワーク化に見事成功した企業は、何が一番違ったのか“女性リーダーをつくる”. <https://president.jp/articles/-/52582>에서 2022.06 인출
- 29) 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2022). <https://www.furusatokaiki.net/>.
- 30) 마이ナビ뉴스(2022.4.18). 『“転職せずに地方移住”が可能!? ライフスタイルに合わせた新たな働き方「地方創生テレワーク」とは?』. <https://news.mynavi.jp/article/20220418-2324728/>에서 2022.06 인출
- 31) 丸山泰(2021). 마케팅 관점에서 보는 “地方移住의課題”에 관한 考察: 熊本の一地方都市での研究事例から. 地域活性研究. Journal of the Jap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nd Vitalization, 14, 145-152.
- 32) 리크ルト웍스연구소(2021.1.27). 「코스타志向」가 若者の仕事観にもたらした真逆의 2つの結果를 考える, 4. <https://www.works-i.com/column/works04/detail036.html>에서 2022.06 인출

- 투 고 일 : 2022년 06월 22일
- 심 사 일 : 2022년 07월 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22년 08월 17일